

소소하고 따뜻한

부산그늘

부산의 일상을 담은 책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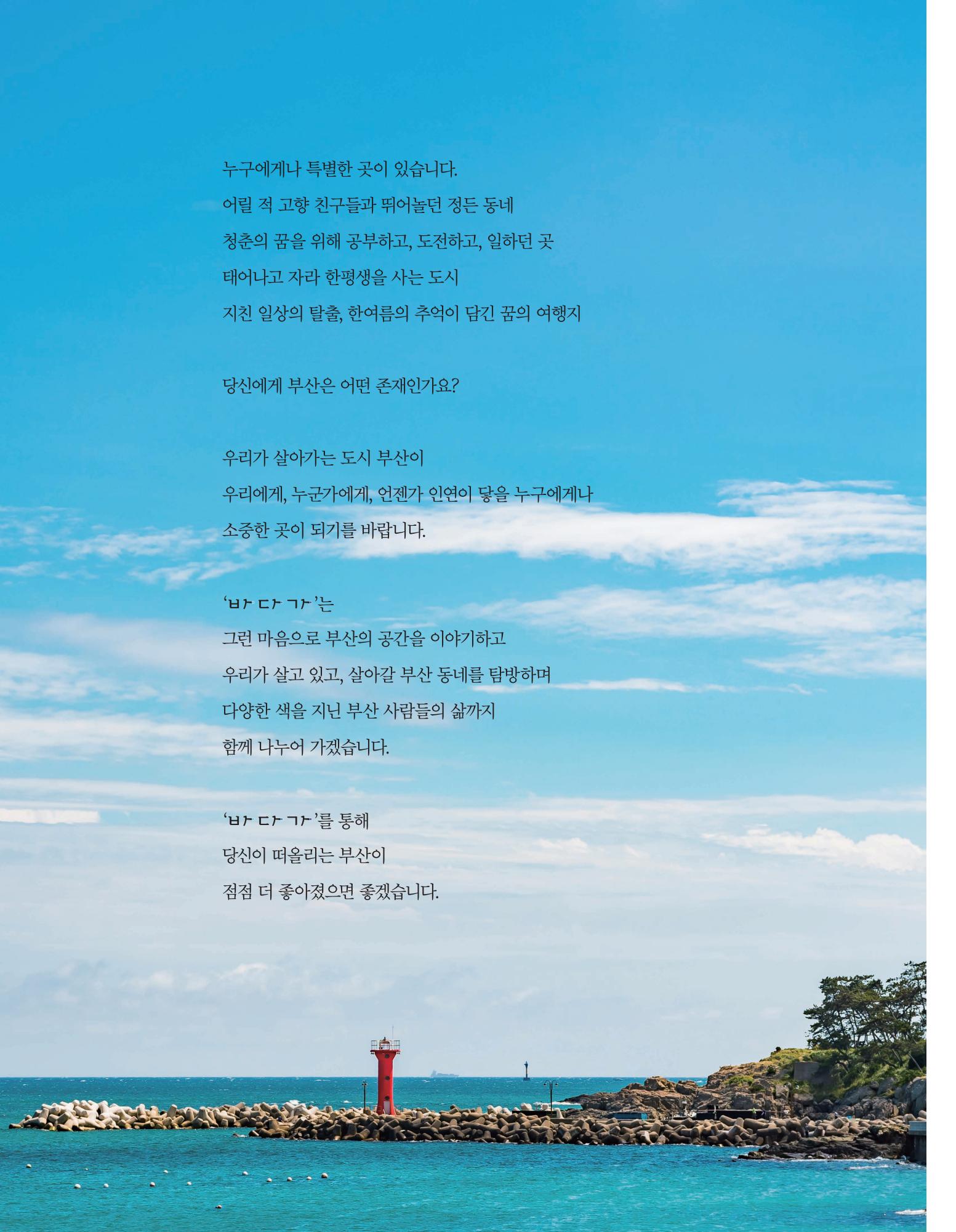
소소하고 따뜻한

부산그늘

부산의 일상을 담은 책

www.bmc.busan.kr





누구에게나 특별한 곳이 있습니다.

어릴 적 고향 친구들과 뛰어놀던 정든 동네
청춘의 꿈을 위해 공부하고, 도전하고, 일하던 곳
태어나고 자라 한평생을 사는 도시
지친 일상의 탈출, 한여름의 추억이 담긴 꿈의 여행지

당신에게 부산은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 부산이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언젠가 인연이 닿을 누구에게나
소중한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산그네**’는

그린 마음으로 부산의 공간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살고 있고, 살아갈 부산 동네를 탐방하며
다양한 색을 지닌 부산 사람들의 삶까지
함께 나누어 가겠습니다.

‘**부산그네**’를 통해

당신이 떠올리는 부산이

점점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contents

02 opening

부산테마

- 04 프롤로그**
케렌시아, 지친 영혼을 위로하다

- 06 테마 에세이**
케렌시아를 찾는 그대, 가장 순수했던 ‘나’로 돌아가라

- 10 테마 플레이스**
태양, 나무, 바다가 만든 우리들의 케렌시아
오시리아

- 16 테마 리포트**
당신은 자신만의 케렌시아가 있나요?

부산동네

- 18 프롤로그**
부산, 동네여행

- 20 서면 서쪽 동네 이야기**
나날이 새로워지는 서면의 색다른 얼굴을 찾아서

- 28 인터뷰 ①**
우리 가족 ‘뒷집 할매’
광무식당 고무순 씨

- 30 인터뷰 ②**
두근두근 첫 걸음
두두커피&떡방 전창엽, 박혜전 부부

부산청년

- 32 청년의 시간을 말하다**
더 많은 부산 청년이 생겨나도록,
계속해서 우리 도시 부산에서 살아가도록

부산그네 소식

- 36 BMC 특집 ①**
오시리아 테마파크 착공식·관광일자리 창출 협약식 개최

- 38 BMC 특집 ②**
동래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 40 BMC 핫이슈**

- 42 BMC 사업현황**

독자 참여

- 44 QUIZ**



cover story



이 책의 이름은
‘부산그네’입니다.
부산도시공사의 자음만 모아보니,
‘부산그네’가 되었고,
사이사이에 있는 삶을 살짝 기울여보니,
‘바다’가 되었습니다.
부산의 바다처럼 더 많은 것을 품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도시를,
우리의 이야기가 담긴 책
‘부산그네’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발행일 2019년 9월 2일

발행인 김종원

발행처 부산도시공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기획·진행 고객소통부 이용재 (Tel. 051-810-1484)

디자인·인쇄 효민디엔피 (Tel. 051-807-5100)

* ‘**부산그네**’는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www.bmc.busan.kr)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Quercencia

케|렌|시|아|

지친 영혼을 위로하다

많은 이들이 매일 아침 출근하며 ‘전장(戰場)’에 나간다고 말한다.

그만큼 현대인이 일터에서 겪는 갈등과 스트레스는 만만치 않다.

투우사와 운명의 일전을 앞둔 황소에게도 숨 고르는 장소가 필요하듯

작막한 일상에서도 숨통을 틔워줄 나만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 네트워크로 촘촘히 연결되어 있는 초연결사회,

타인의 침범을 불허하는 나만의 공간을 찾기란 쉽지 않지만

잠시 ‘나 홀로 고립되어도 좋다’는 인식 전환과 약간의 수고만 더하면

누구든 도시라는 정글에서 나만의 케렌시아를 찾아낼 수 있다.

알고 보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을지도 모르는 나만의 케렌시아…

그곳을 찾아 떠나는 ‘나’라는 모험가를 상상하며, 달콤하고 산뜻한 나만의 행복에 빠져보자.

케렌시아를 찾는 그대, 가장 순수했던 ‘나’로 돌아가라

.....

글 최정원(청춘연구소 대표)



청춘연구소 대표 최정원

사람 냄새 나는 문화 기획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청춘연구소를 만들었고 6년째 운영해오고 있다. 부산의 문화예술 인력들을 교육하고 취업으로 연결해주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고, 함께 고민을 이야기하고 나누는 모임인 ‘대화가 필요해’, 청년들의 인생 설계 프로젝트인 ‘씨스루 캠프’ 등을 기획했다.

피로한 현대인, 케렌시아를 찾다

현대인의 불안과 고독의 원인을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 원인이 무척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이다. 다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현대인들이 취하는 행동을 분석해보면 작은 힌트를 발견한다. 그런 점에서 케렌시아는 현대인들의 불안과 고독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케렌시아의 어원인 ‘케레르(querer)’는 ‘바라다’라는 동사로부터 파생되어, 애정, 애착, 귀소 본능, 안식처, 피난처 등의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국내에 케렌시아의 개념이 알려진 계기는 김난도의 저서 ‘2018 트렌드 코리아’에서 2018년 소비 트렌드로 소개되면서부터다.

저서에서는 DIY를 할 수 있는 취향 카페, 책을 읽으며 맥주를 마시는 책맥, 안마를 하며 잠을 청하는 수면 카페, 요리를 하며 맥주를 마시는 비어 요가, 출근길 버스의 가장 뒷좌석, 회사에서 나만의 책상을 열정적으로 꾸미는 데스크테리어, 식물과 인테리어의 합성어인 플랜테리어, 짧은 시간 집중적으로 휴식하는 패스트 힐링 등을 케렌시아의 주요 형태로 설명하고 있다. 분·초 단위를 조개어 살아가며 일상의 피로가 촉적된 현대인들은 소모된 에너지를 빠르게 재충전할 수 있는 활동을 하기 위하여 케렌시아를 찾고 있다.

7

나를 가장 강하게 만드는 케렌시아

케렌시아는 문학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어네스트 헤밍웨이는 그의 저서 ‘오후의 죽음’에서 케렌시아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스페인에서 실제로 투우 경기를 보며 글을 썼는데 케렌시아라는 단어가 원래 투우 경기의 용어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케렌시아는 투우장에서 싸움소가 본능적으로 찾아내는 장소다. 싸움의 와중에 소는 그곳을 집으로 삼는다. 여기에서 그는 든든한 벽을 등지고 누구도 자신을 침범하지 못하는 상태로 만든다. 그곳에서 소는 인간이 꺾을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진다.

헤밍웨이의 설명처럼 온 몸에 작살이 꽂힌 소가 공포와 흥분 속에서 마지막 일전을 위해 숨을 고르는 장소가 바로 케렌시아다. 소가 케렌시아에 있을 때 이를 건드리는 것은 투우사들에게는 금기이다. 왜냐하면, 케렌시아에서 만큼은 인간이 소를 이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강한 힘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를 어기고 케렌시아 안으로 덤벼들면 투우사는 대부분 죽음을 피하지 못한다.



인문학적 관점에서 케렌시아는 단순히 에너지를 충전하거나 즐거움을 추구하는 시간, 장소, 활동 등의 협소한 개념이 아니다. 그보다는 인생의 생사고락 전반을 다루는 광의의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소는 공포와 분노 속에서 안정을 찾기 위해 경기장에서 스스로 자신만의 영적인 장소를 구축한다. 그곳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에게는 분명 존재한다. 그곳에서 소는 가장 강력한 힘을 얻으며,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마지막 일전을 준비한다. 소 이외에는 아무도 그 영역에 발을 들일 수 없다. 그곳은 오직 자신만을 위해 구별된 장소 이자 시간이다. 결국 인문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케렌시아는 다른 것과는 질적으로 구별된 시간과 장소를 뜻하는 것이다.

8

일상 공간 속에서 케렌시아를 찾다

장소로 한정해본다면 케렌시아는 집, 카페, 영화관, 갤러리 등 저마다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특히 집이나 자동차는 자신만의 케렌시아를 만들기에 이상적인 공간이다. 예를 들어 어떤 이들은 거실에 TV를 없애고 좋은 성능의 스피커와 리클라이너 소파를 배치하여 케렌시아 공간을 꾸민다. 은은한 간접 조명도 거실 구석마다 여러 개 들여놓으면 금상첨화. 퇴근 후 집에 들어와 거실의 조도를 낮춰 카페와 같은 은은한 분위기로 꾸며놓고 음악 감상에 몰입하면 하루 동안 쌓였던 피로는 씻은 듯이 날아간다. TV가 없는 삶을 상상하기 힘든 분들도 있겠지만 의외로 TV를 없애고 나서 비로소 온전한 휴식을 얻었다고 말하는 분들도 많다.

패스트푸드를 선택하는 것처럼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빠르고 간편하게 휴식을 취하는 패스트힐링도 케렌시아의 한 종류로 각광받고 있다. 최근 많이 생겨나고 있는 수면 카페가 대표적이다. 해먹 위에 누워 잠을 청하거나 안마의자를 이용할 수 있다.

일터를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바꾸는 사람들도 있다. 책상을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의 ‘데스크테리어족(데스크 + 인테리어 + 族)’이다. 조명, 사진, 가구, 화분 등 소규모 인테리어 장식을 활용하여 직장에서 자신의 사무 공간을 나만의 케렌시아 공간으로 바꾸는 것이다.



가장 나다웠던 기억과 시간으로 돌아가보자

케렌시아에는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물리적인 것도 상당수 차지한다. 물리적 의미가 장소와 공간이라면, 비물리적 의미는 본래의 순수한 자신으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적 의미에서의 회귀는 특정한 사건 또는 시간을 기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첫 사랑을 만났던 시간을 떠올리거나, 100일을 기념하거나, 결혼기념일과 같은 누군가와의 특별한 날을 기념하거나, 생일과 제사처럼 누군가가 태어난 날이나 죽은 날을 기억하는 등이 그 예이다. 그리고 집안 곳곳에 사진, 선물 등 그날을 기념하는 상징적 물건들로 장식한다. 그것들은 자신이 가장 자나다웠던 기억과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게 한다. 이런 측면에서 기준의 케렌시아라는 개념을 조금 더 인문학적으로 확장해볼 수 있지 않을까?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 과도한 소비를 하거나 억지스럽게 의미를 찾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한다면 오히려 더 피곤해질 수도 있다. 그러한 활동 대신, 스스로가 어떤 가치에 반응했던 사람인지 자신의 과거를 찬찬히 되돌아보자. 그리고 스스로를 건강하게 만들었던 추억과 깨달음, 그것을 상징하는 물건들로 공간을 채워보는 것은 어떨까?

나에게 힘을 주는 가족사진, 사랑하는 사람에게 썼던 연애편지, 졸업 기념으로 받은 정장, 첫 직장에서 썼던 명함, 어렸을 적 적었던 일기, 생일선물로 받은 인형, 성년의 날에 받은 향수, 아버지에게 받은 만년필 등 오늘날의 자신을 존재하게 했던 것들로 채워가는 것이다.

이렇듯 케렌시아는 단순히 ‘무엇을 채울까’라는 욕구에서 출발하기보다는 진정한 ‘나’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단순히 욕구를 채운다고 해서 나를 일깨우지는 못한다. 욕구 이상의 ‘나’에 대해 스스로 고찰해야만 한다.

케렌시아라고 해서 굳이 자신에게 스스로 간혀서 고립될 필요는 없다. 자신을 잘 들여다보며 좀 더 자신을 잘 알아가는 공간과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 오히려 개방적인 관계 속에서 자신에 대해 더 잘 터득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그 안에서 진정한 자신을 마주할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케렌시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그곳에서 새로운 용기와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9



10

태양, 나무, 바다가 만든 우리들의 케렌시아 오시리아

.....

문득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날이면 자연이 떠오른다.
철썩이는 파도 소리와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신록의 푸르름까지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다.
푸른 자연을 간직한 그곳, 오시리아를 걸으며
부산도시공사와 시민이 함께 만든 부산의 케렌시아를 만나보았다.



전설을 담은 이름 오시리아

과거 한 남자가 기장으로 유배를 왔다. 이 남자를 만나기 위해 다섯 명의 선비가 기장을 찾았다. 기장에서 재회한 친구들은 바다 위 암벽에 둘러앉아 빼어난 풍경을 안주 삼으며 술을 마시고 풍류를 즐겼다. 이 다섯 명의 선비, 오랑(五郎)의 전설은 오랑대 명칭의 유래가 되었다.

그런가 하면 기장에는 사랑에 관한 전설도 있다. 어느 날, 공수마을에 심한 가뭄이 들었다. 이에 미랑이라는 용한 스님이 사랑대에 올라 기우제를 지냈다. 우연히 그를 본 용궁의 용녀는 첫눈에 사랑에 빠진다. 둘은 하룻밤을 보내게 되고, 열 달 뒤 용녀는 사랑대에서 출산을 하게 된다. 하지만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용왕이 노하여 큰 파도를 일으켰고, 용녀와 아기는 파도에 휩쓸려 가버렸다. 아내와 아이 마저 잃은 미랑은 피를 토하며 울부짖었는데, 그리하여 지금도 비가 오는 날이면 미랑의 울음소리가 들려온다는 이야기다.

이 두 전설에서 오시리아 이름이 유래되었다. 오랑대의 '오', 사랑대의 '시', 그리고 장소를 뜻하는 접미사 '리아'가 합쳐져 탄생한 이름인 것이다. 여기에 "부산으로 오시라"는 중의적 의미를 더해 2016년부터 '오시리아'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한 동부산관광단지는 볼거리, 즐길 거리에 더해 쉴 거리 또한 가득한 공간이다.

11

오시리아 천변공원



도심과 가까운
우리의 쇼핑 놀이터!



IKEA

이케아

롯데프리미엄아울렛

LOTTE MALL



롯데월드어드벤처 부산

아쿠아월드

아바니 호텔앤리조트

AVANI

동암마을

힐튼호텔

아난티코브

오랑대

거북바위

연화리

기장읍

해운대구

연화리

기장읍

오시리아역

오시리아 관광단지

해동용궁사

송정해수욕장

광안리해수욕장

해운대해수욕장

해운대구

기장읍

연화리

기장읍

오시리아역

오시리아 관광단지

해동용궁사

송정해수욕장

광안리해수욕장

해운대구

기장읍

연화리

기장읍

오시리아역

오시리아 관광단지

해동용궁사

송정해수욕장

광안리해수욕장

해운대구

기장읍

연화리

기장읍

오시리아역

오시리아 관광단지

해동용궁사

송정해수욕장

광안리해수욕장

해운대구

기장읍

연화리

기장읍

오시리아역

오시리아 관광단지

해동용궁사

송정해수욕장

광안리해수욕장

해운대구

기장읍

연화리

기장읍

오시리아역

오시리아 관광단지

해동용궁사

송정해수욕장

광안리해수욕장

해운대구

기장읍

연화리

기장읍

오시리아역

오시리아 관광단지

해동용궁사

송정해수욕장

광안리해수욕장

해운대구

기장읍

연화리

기장읍

오시리아역

오시리아 관광단지

해동용궁사

송정해수욕장

광안리해수욕장

해운대구

기장읍

연화리

기장읍

오시리아역

오시리아 관광단지

해동용궁사

송정해수욕장

광안리해수욕장

해운대구

기장읍

연화리

기장읍

오시리아역

오시리아 관광단지

해동용궁사

송정해수욕장

광안리해수욕장

해운대구

기장읍

연화리

기장읍

오시리아역

오시리아 관광단지

해동용궁사

송정해수욕장

광안리해수욕장

해운대구

기장읍

연화리

기장읍

오시리아역

오시리아 관광단지

해동용궁사

송정해수욕장

광안리해수욕장

해운대구

기장읍

연화리

기장읍

오시리아역

오시리아 관광단지

해동용궁사

송정해수욕장

광안리해수욕장

해운대구

기장읍

연화리

기장읍

오시리아역

오시리아 관광단지

해동용궁사

송정해수욕장

광안리해수욕장

해운대구

기장읍

연화리

기장읍

오시리아역

오시리아 관광단지

해동용궁사

송정해수욕장

광안리해수욕장

해운대구

기장읍

연화리

기장읍

오시리아역

오시리아 관광단지

해동용궁사

송정해수욕장

광안리해수욕장

해운대구

기장읍

연화리

기장읍

오시리아역

오시리아 관광단지

해동용궁사

송정해수욕장

광안리해수욕장

해운대구

기장읍

연화리

기장읍

오시리아역

오시리아 관광단지

해동용궁사

송정해수욕장

광안리해수욕장

해운대구

기장읍

연화리

기장읍

오시리아역

오시리아 관광단지

해동용궁사

송정해수욕장

광안리해수욕장

해운대구

기장읍

연화리

기장읍

오시리아역

오시리아 관광단지

해동용궁사

송정해수욕장

광안리해수욕장

해운대구

기장읍

연화리

기장읍

오시리아역

오시리아 관광단지

해동용궁사

송정해수욕장

광안리해수욕장

해운대구

기장읍

연화리

기장읍

오시리아역

오시리아 관광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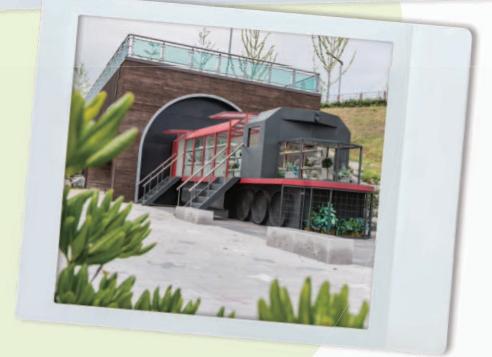
부산도시공사가 조성한 오시리아 속 녹색랜드마크로 푸른 힐링을 떠나보자!



01

옛 철로를 기억하는 길 오시리아 천변공원

해운대구와 기장군의 경계 역할을 하는 송정천 앞에는 오시리아 천변공원이 위치한다. 하천을 따라 길게 조성된 공원은 소통활동, 문화예술, 친수생태의 세 가지 테마로 나누어져 있다. 줄줄 흐르는 천을 따라 산책을 즐기기에도,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기에도 더없이 좋은 공간이다. 온통 푸르고 맑은 자연이 가득한 이곳은 모든 연령 층의 힐링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중이다.



14



02

바다를 만나는 공원 워터프론트파크

본다빈치스퀘어 건물 뒤편에서 사잇길을 따라 내려오면 마치 공간 이동을 한 듯 색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짧은 산책로가 전부일 것 같지만 안으로 들어서면 1만 7천m² 규모의 잔디 공원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공원 전면으로는 바다가 펼쳐져서 어디로 눈을 돌리든 가슴 뻥 뚫리는 시원한 해안 풍경을 조망할 수 있다. 곳곳에는 휴게공간이 우리를 반긴다. 뜨거운 햇볕을 피해 여유로운 휴식이 가능하다.



03

호기심 가득한 그린 스퀘어 광장

롯데 아울렛몰 앞으로 커다란 물음표 모양의 건축물이 눈에 띈다. 오시리아 중심부에 위치한 광장이다. 광장은 1만 2천m² 부지로 온통 푸른 잔디가 뒤덮고 있다. 곳곳에는 조형 파고라가 설치되어 있어 커피 한 잔의 여유로운 휴식이 가능하다. 또한 곡선 모형의 쉘터는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마음껏 뛰어놀게 만들어 준다. 이곳 인근에는 테마파크와 아쿠아리움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문화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기대된다.



15



04

부산 최고의 갈맷길 코스 오시리아 해안산책로

해안산책로는 2.6km로 오션뷰 레스토랑 부지에서 동암마을까지 이어진다. 그중 가장 많은 발길이 닿는 곳은 아난티코브 호텔 뒤로 펼쳐지는 산책길. 호텔 이용객뿐만 아니라 누구나 거닐 수 있어 밤낮으로 많은 사람이 찾는다. 호텔 방면으로는 넓은 잔디광장과 테라스가 펼쳐지고 그 옆으로는 흰 파도가 바위에 철썩인다. 이 같은 이색적이고 평온한 풍경은 먼 곳으로 여행 온 듯한 설렘을 선사한다. 절경을 따라 걷다 보면 일출 명소인 오랑대와 용왕단도 만날 수 있다.



15

당신은 자신만의 케렌시아가 있나요?

16

아침 사과가 금이라면
케렌시아는 직장인의 삶을
지탱해주는 특효약이다.
케렌시아가 주는 안락함과
기분전환의 힘을 누가 마다할까.
첫째도 케렌시아, 둘째도 케렌시아!
꺼진 불도 다시 보듯
나의 케렌시아를 돌보고 살펴보자.

BMC인들은
어떤 케렌시아를 꿈꾸고 있나요?



2 나만의 케렌시아를 위해 한 달간 얼마를 지출할 수 있나요?

10만 원 초과 ~ 20만 원 이하

39%

30만 원 초과

23%

10만 원 이하

20%

20만 원 초과 ~ 30만 원 이하

18%



1 나만의 케렌시아는 어디인가요?

집

57%

공원(산, 바다 등)

21%

기타

15%

카페 또는 음식점

7%



이런 의견도 있어요!

- * 깊은 바닷속
- * 새벽의 맑고 시원한 공기를 접할 수 있는 공원 산책로
- * 헬스장, 골프장, 자전거로 등 운동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 * 집에서 아기를 재우고 나서 맥주와 함께 영화를 시청할 수 있는 거실

3 케렌시아를 찾게 되는 원인은?

직장, 업무

48%

단순 육체 피로

34%

기타

15%

가족, 이성 문제

3%



이런 의견도 있어요!

- * 육아 스트레스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 * 나의 하루하루가 진정 나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알고 싶어서
- * 뇌 건강, 체력 관리 등을 위하여

5 공사 사옥 내 나만의 케렌시아는 어디인가요?

기타, 없음 등

48%

9층 회사 북카페

29%

옥상 등 흡연 가능 구역

18%

1층 고객접견실

5%



이런 의견도 있어요!

- * 헬스장 * 화장실 * 계단

6 추천하고 싶은 나만의 케렌시아는?

* 초읍 성지곡 수원지, 백양산 명품 숲길 달리기. 편백 나무 우거진 숲속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달리다보면 영혼이 맑아지는 느낌이다.

* 가끔씩 늦은 밤에 바디테라피 속에 가서 마사지 받기. 온몸에 쌓여 있던 독소가 다 빠져나가고 숙면을 취할 수 있다.

* 어릴 적 살던 동네, 다니던 학교, 뛰어놀던 골목에 다시 가보기. 한번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생각이 정리되고 잠시 추억에 젖을 수 있어서 좋다.

* 캠핑의자를 차에 항상 가지고 다닌다. 오시리아 해광사 절 앞에 앉아 보온병에 담아온 따뜻한 물에 믹스 커피를 타 마시곤 한다.

* 바다가 보이는 송정의 카페에서 편안히 몸을 기대고 잠시 낮잠 자는 것을 추천한다.

4 요즘 내가 '절실히' 케렌시아를 찾는 주기는?

매일 필요하다

37%

일주일에 1~3회 정도

36%

한 달에 1~3회 정도

24%

기타

3%



※ 설문 참여직원 130명

16

17

부산, 동네여행

18

우리는 부산에 산다.
바다가 예쁜 도시, 목청 큰 사람들로 늘 파도치듯 떠들썩한 도시.

누군가는 부산하면 고기잡이배, 항구, 자갈치시장을 떠올릴 테고 누군가는 마린시티의 화려한 불빛과 바다 위 빛나는 광안대교를 떠올릴 것이다.

과거의 추억과 화려한 현재를 함께 안고 살아가는 도시.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네도 나날이 변화하고 있다. 우리 또한 '부산 동네'의 변화에 발맞추어 각자 소중한 삶을 꾸려가고 있다.

'부산동네'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 동네의 소소한 변화를 여행한다. 부산의 변화가 서면에서 서쪽으로 조금 떨어진 동서고가도로 아래의 동네, '떠남'과 새로운 '변화'를 동시에 맞고 있는 그곳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보자!



19

나날이 새로워지는 서면의 색다른 얼굴을 찾아서

동서고가도로에서 서면롯데백화점과 온종합병원 쪽까지 이어진 동네를 걸어본다.
한때 성황을 이루었던 인쇄거리에 세련된 인테리어의 카페, 술집 등이 들어서고 있고,
과거 개성중학교였던 곳은 글로벌 빌리지로 탈바꿈하여 푸른 눈의 외국인 선생님들이 지나다닌다.
서면이라 하면 쥬디스타화 뒤쪽의 변화가와 전포카페거리만 떠올리기 쉽지만
이렇듯 우리가 주목하지 못했던 서쪽 동네에도 재미있는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나날이 새로운 단장으로 거듭나고 있는 서면 서쪽 동네의 다양한 얼굴들을 만나본다.



21

인쇄골목,
새로운 문화를 꽂피우다

01 1980년대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서면 인쇄골목에는 한때 350여 개의 인쇄업체가 있었지만 현재는 100여 개가량으로 줄어들었다.

02 동서고가도로 주변에 새로 생겨난 카페들은 콘크리트 일색의 거리에 화사한 표정을 새겨 넣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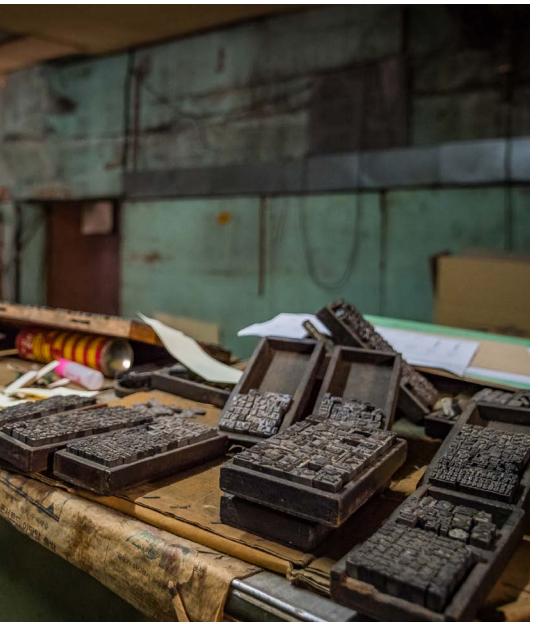
03, 04 최근 인쇄골목에는 이색 주점과 젊은 감각이 돌보이는 전문 식당이 생겨나 거리에 활기를 더하고 있다.

동서고가도로 아래에서 서면롯데백화점으로 이어지는 동네의 입구에 섰다. 서면인쇄골목의 시작이다. 이곳은 변화가에서 조금 떨어진 외곽 지역이라 비교적 땅값이 저렴했고 주변에 학원과 사무실이 많아 인쇄 수요도 풍부했다. 이러한 조건 때문에 1980년대부터 하나둘씩 인쇄소가 모여들어 거대한 인쇄골목이 형성됐다. 한때는 350여 개의 인쇄 업체가 모여 성황을 이루었다. 갓 인쇄된 종이의 열기와 묵직하게 코끝에 내려앉는 잉크 냄새를 느낄 수 있었던 시절. 주위를 둘러보면 지금도 그때의 흔적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다.



22

- 01 산뜻한 간판의 미용실과 바이크숍 등은 오래된 인쇄업체들의 간판과 묘한 대조를 이룬다.
02 천지문화사에서 아직도 쓰고 있는, 금박 후가 공을 위한 납 활자들.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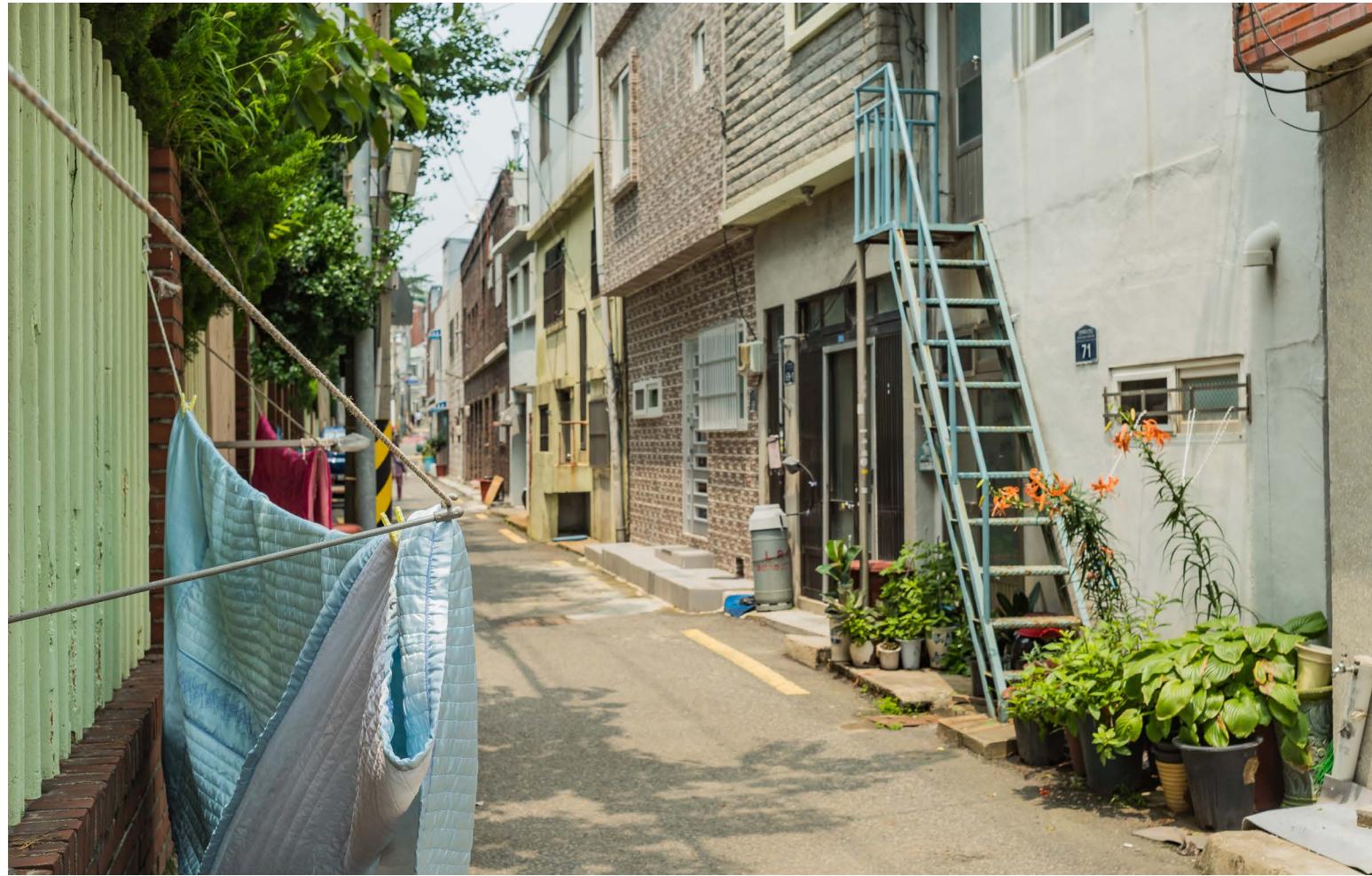
이 골목에서 유일하게 옛날 납 활자를 보존하고 있는 ‘천지문화사’의 전쌍지 대표는 1974년도에 처음 인쇄업에 발을 들였고 서면 인쇄골목에 들어온 지는 30년 가량 되었다고 한다.

“이런 납 활자는 금박 후가공에 사용되지만 열에 약하기 때문에 20권 이상은 찍지 못해요. 대량 인쇄는 다 동판을 떠서 찍고, 소량 양장제본도 하는 이곳에 서만 아직 납 활자를 쓰고 있지요.”

그는 요즘 인쇄골목의 경기가 좋지 않아 씁쓸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래도 양장제본은 서면에서 여기 말고는 다른 데서 못 하기 때문에 아직은 버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의 말마따나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의 발달로 인해 종이 매체들이 사라지면서 주변 인쇄소들도 일감을 잃고 하나둘씩 사라져가기 시작했다. 덩 빈 공간이 늘어나고 동네가 음씨년스러워지는가 싶었더니, 최근 눈에 띠는 반가운 변화가 생겼다. 인쇄소가 떠난 빈자리를 최근 청년 창업자들이 메우고 있다는 것이다.

깔끔한 외관과 세련된 인테리어를 갖춘 밥집, 카페, 술집, 미용실, 바이크숍 등이 전통적인 인쇄소를 사이에 드문드문 자리한 광경은 이 동네에 한층 더



01



02

이색적인 재미를 더해주었다. 옛 추억도 떠올리고 새로운 즐거움도 만끽할 수 있는 이 동네의 변화를 많은 사람들이 반기워하고 있다.

추억과 변화 속 다양한 풍경의 하모니

과거 코엑스나이트 등 유명했던 거리에서 조금 더 서쪽으로 들어가 네오스포 쪽 골목으로 들어서면 인쇄거리와는 또 다른 풍경이 보인다. 다타다다 붙어서 고만고만한 키를 자랑하는 집들이 늘어서 있다. 이불 두 채가 여름 햇살에 제 몸을 말리는 풍경을 지나자 정오의 땀을 식힐 수 있는 평상이 낮은 자세로 인사를 건넨다.

평범한 주택가인 듯싶지만 이곳에도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01,02 인쇄거리에서 부산도시공사로 가는 골목의 오래된 주택가에서는 이불 빨래와 화분 등을 집 앞에 내놓은 모습이 정겨운 느낌을 준다.

2009년 7월에 문을 연 부산 글로벌 빌리지에는 원래 개성중학교가 있었다. 국내 최고의 외야수로 평가받는 롯데 자이언츠의 손아섭 선수가 나온 야구 명문이다. 글로벌 빌리지 주변에는 울창한 녹음이 우거져서 번잡한 도심 속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오아시스 역할을 한다.

서면 롯데백화점, 롯데호텔 자리에는 부산상업고등학교가 있었으나 1980년대 말 당감동으로 옮겨 갔다. 과거 광무여자중학교 자리에는 현재 부산도시공사가 자리 잡았다. 이 동네에서 오래 살았던 어르신들은 “그 주변이 모두 풍수 지리상 명당이어서 더 많은 걸출한 인재들이 배출될 수 있었는데 학교들이 다른 데로 옮겨 가서 아쉽다”는 말씀을 하시곤 한다. 롯데백화점 옆에는 청국장, 찌개, 탕 등이 구수한 냄새를 풍기던 뚝배기골목이 있었으나, 지금은 세련된 인테리어를 자랑하는 다양한 식당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부산도시공사 뒤편 커다란 공간에는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로 인해 교통이 편리한 서면에서도 비교적 집세가 싸 아주 노동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 동네에도 조만간 큰 변화의 바람이 불 것 같다.

24

이러한 변화의 바람 속에서도 여전히 예전 모습 그대로 이 동네를 지키는 터줏대감은 1980년대 후반에 여기로 옮겨온 부전초등학교다. 입구 맞은편에 자리한 문방구는 옛날 모습 그대로라 수업이 끝나면 문방구로 직행하던 기억을 떠오르게 한다.

철도 거리가 새로운 관광 거리로

한가로운 골목을 따라 나와 길을 건너면 도시철도 2호선 부암역 근처 동네에 닿는다. 골목의 느긋함은 간데없이 머리 위로는 동서고가도로가 펼쳐지고, 평일 한낮에도 신호등 불빛 따라 사거리로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과 차의 행렬이 줄을 잇는다. 그 기세에 걸음을 재촉하며 온종합병원 뒷길로 향한다.

당감2동에 속하는 이곳은 원래 부산차량관리단, 부산기관차사무소 등 동 전체의 75%를 철도 기관이 차지했다. 지금은 온종합병원, 휴병원 등이 들어서고, 서면 메디컬스트리트의 중심지로 자리 잡으며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온종합병원 뒷길로 들어서자 넓게 정비된 도로가 나타난다. 조금만 더 걸으면



01 부전초등학교 입구 맞은편에 자리한 오래된 문방구가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한다.

02 기차가 지나가는 길 아래에 형성된 터널에는 아기자기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다.

03 옛날 개성중학교가 있던 자리에는 글로벌 빌리지가 조성돼 서면이라는 변화가 속의 작은 쉼터로 사랑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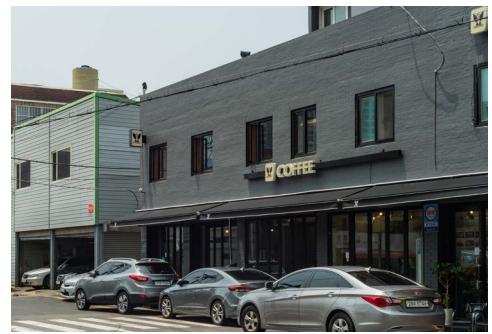


03

25



26



자신만의 개성으로 단장한 가게들이 눈에 띈다. ‘목욕합니다’ 간판을 달고 있는 건물은 사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화제인 ‘장진우 식당’이다. 옛날 목욕탕을 세련된 레트로풍의 레스토랑으로 변신시킨 젊은 사장의 감각이 눈길을 끈다. 앵두 모양 아이콘이 귀여운 과일 가게 간판에도 많은 이들의 시선이 닿는다. 철도 기지 관련 건물들로 과거 삐딱하고 무뚝뚝하던 동네에 생기가 스며들고 있다.

이렇듯 도심 속 동네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빠른 변화를 보여준다. 일견 쇠퇴하는 듯 보일 때도 있지만 어느새 새로운 희망의 바람이 불어오기도 하는 곳. 서면 서쪽 동네는 강인한 생명력과 상상을 뛰어넘는 포용력으로 지금도 여전히 생생히 ‘살아 있다’.

01 목욕탕을 개조해 독특한 아우라를 풍기면서도 세련된 인테리어가 눈길을 끄는 레스토랑은 부산 젊은이들의 발길을 이동네로 이끄는 일등 공신이다.

02 도시철도 2호선 부암역 근처는 원래 철도 기관이 많았던 동네였으나 지금은 서면메디컬스트리트의 중심지로 떠올랐다.

03, 04 앵두 모양의 아이콘이 귀여운 과일가게와 새로 문을 연 세련된 카페가 한때 차량 기지로 인해 삐딱했던 동네 분위기를 바꾸고 있다.

지도로 걸어보는 서면 서쪽 동네



서면 서쪽 동네 구석구석 즐기기

상호	업종	주소
광무식당	한식	부산진구 신천대로162번길 9
글로벌빌리지	교육기관	부산진구 가야대로 734
두두커피&떡방	카페/떡집	부산진구 신천대로162번길 19, 1층
모토비	바이크숍	부산진구 부전로 11
봉프루	청과물	부산진구 가야대로703번길
부산도시공사	공공기관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부전초등학교	교육기관	부산진구 부전로65번길 25
삼식당	돼지고기구이	부산진구 부전로 17
소설당	일식주점	부산진구 신천대로102번길 34
장진우식당	양식	부산진구 가야대로703번길 39
천카페	식음료	부산진구 신천대로197번길 24
815헤어	미용실	부산진구 부전로 11, 1층

우리 가족 ‘뒷집 할매’

—
광무식당 고무순 씨

28

“할매, 할매 세끼 먹는 김에 우리도 좀 같이 노나 먹읍시다.” 관절염 수술을 받느라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쉬었던 고무순 씨를 다시 가게에 앉았던 말이다. 할매가 없던 사이 ‘뒷집 할매’ 밥맛을 그리워했던 부산도시공사 직원들은 이제야 속 편한 밥을 먹을 수 있게 됐다.

식당이자 휴게실, 약국까지 만능 공간

‘뒷집 할매’. 광무식당 고무순 씨를 부르는 별명이다. ‘광무식당’이라는 어엿한 이름도 있건만, ‘뒷집 할매’로 더 잘 통한다. 무순 씨는 1971년 스물네 살, 부산으로 시집와 지금의 식당 자리에 자리를 잡은 후, 50여 년을 이곳에서 보낸 터줏대감이다.

“원래는 지금 부산도시공사 자리에 있던 광무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분식집을 했어. 그러다가 1994년 공사 기초 공사를 시작하면서 학교가 헐리고, 남편도 죽었지. 세 남매를 두고 막막하던 시절이었는데, 공사가 들어서면서 자연스럽게 국수랑 라면을 팔면서 살림을 이어올 수 있었어. 고마운 일이지.”



부산도시공사와 뒷집 할매의 첫 인연은 개소식이었다. 건물이 완공되고 행사를 하던 날, 공사 직원이었던 신동훈 씨가 칼이며 도마, ‘다라이’ 등 필요한 물건을 무순 씨에게서 빌렸던 것이다. 그때 이후로 무순 씨는 ‘뒷집 할매’가 되었고, 식당은 점심시간이면 좁은 공간에 오밀조밀 들어찬 공사 직원들로 북적이게 됐다.

“오는 순서대로 식탁에 앉아서는, 자기들이 알아서 반찬이며 물이며 안쪽으로 전달하는 거라. 내가 관절염 때문에 다리가 아플 때는 알아서 음식도 퍼먹고 많이 도와줬어.”

부산도시공사 직원들에게 이곳은 밥을 먹고 난 후 잠시 쉬었다 가는 휴게실이기도 했다가, 어떤 때는 약이나 반창고를 찾는 약국이 되기도 했다. 언제나 편안하게 오갈 수 있는, 식당 이상의 공간이었던 셈이다.

든든하게 받쳐주는 가족처럼

무순 씨와 부산도시공사가 인연을 맺은 지도 약 25년. 긴 시간만큼 쌓인 기억들도 많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함께 나누는, 말 그대로 ‘가족’처럼 함께 살아온 셈이다. 그중 무순 씨에게 남은 가장 고마웠던 기억은 큰 아들이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공사 직원들이 현수막을 걸었던 일이다. 밥을 먹으러 온 직원들이 소식을 듣고선 그 자리에서 사비를 모아

축하 플래카드를 설치했다. 무순 씨는 고마운 마음에 일기장에도 그날 일을 남겼다.

“좋은 일만 있었겠어? 조문 갈 일도 생기고 그랬지. 그럴 때면 좋은 곳에 가서 편안하라고 마음으로 기도했어. 또, 워낙 오래 지키고 있다 보니, 헤어진 인연들도 많아. 한 명 한 명 다 꼽을 순 없지만, 퇴직하면서 들려선 ‘그동안 밥 잘 먹었다’, ‘앞으로 건강하시라’ 인사하고 가는 뒷모습을 배웅 하곤 했지.”

최근 무순 씨네 가게는 한적한 편이다. 옛 단골들이 공사를 많이 떠났고, 주위에 밥을 먹으러 갈 만한 가게들도 여럿 생겼기 때문이다. 복작거리던 때를 생각하면 조금 아쉬울 법도 하건만, 가까이 있어 오가며 안부를 나눌 수 있는 것만으로도 무순 씨에겐 참 고마운 일이다.

“공사를 떠올리면 그저 고맙다는 말이 먼저 나와. 남편을 잃고 세 아이를 키우기까지 든든한 베풀목이 되어줬어. 나뿐만 아니라, 공사 사람들은 이 동네를 살뜰하게 챙겼어. 명절에 상품권 같은 게 나오면 주민들한테 전달하고는 했지. 후배 직원들도 주위를 더 넓게 보면 좋겠다 싶어.”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면 바로 앞 부산도시공사 건물을 향해 ‘모두에게 좋은 하루이길’ 기도한다는 무순 씨. 앞으로도 공사의 ‘뒷집 할매’로 오래도록 이 자리를 지키고 싶다.

29



두근두근 첫 걸음



30

두두커피&떡방 전창엽, 박혜전 부부

광무식당을 따라 더 안쪽 골목으로 들어오면 오밀조밀 자리한 낮은 집들 사이에 깔끔한 외관의 건물이 눈에 띈다. 커다란 창을 활짝 열어 사람들을 반기는 카페, 두두 커피&떡방이다. 낡고 오래된 거리에 세련된 공간의 출현은 낯설지만 반가운 소식이다. 이곳을 꾸려가는 부부, 커피 내리는 전창엽 씨와 떡케이크 만드는 박혜전 씨를 만났다.

오래된 풍경에 싹튼 설렘

지난 6월 3일, 부산도시공사 뒷골목에 하얀색 외벽의 가게 하나가 자리를 잡았다. 단정하면서도 개성 있는 실내에 떡케이크와 아기자기한 캐릭터가 그려진 컵설기, 직접 담근 과일청을 활용한 음료들이 반기는 ‘두두커피&떡방’이다.

조용하던 골목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은 건 전창엽, 박혜전 부부. 마산에서 생활하다가 지난 2월 문현동으로 이사 와 지금 위치에 가게를 차렸다. 상권이 발달한 지역도 아닌 데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거리에 들어선 이유가 궁금하다.

“처음에는 떡케이크 공방을 열려고 했습니다. 오며 가며 들르는 분들보다는 알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 골목 안쪽에 있어도 팬찮을 거라 생각했어요. 대신, 교통 편의성을 생각해서 지하철역이 가까운 위치를 골랐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리를 잡고 보니 유동 인구가 제법 되는 편이라 카페를 함께해도 좋겠다 싶어 공사 직전에 카페로 결정했죠.” (전창엽)

“위치나 비용 등도 물론 중요한 문제였지만, 저는 이 거리나 건물의 느낌이 좋았어요. 긴 세월을 그대로 품은 벤티지한 멋이 있었죠. 보자마자 이곳에서 가게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박혜전)

멀리서 볼 때는 그저 오래된 골목에 불과했지만, 한 발자국 가까이 들여다보니 숨은 매력이 많았다. 이제는 두두커피&떡방도 이곳의 풍경이 한층 풍성해지는 데 한몫하고 있다.

함께 만들어갈 이야기

카페 이름 ‘두두’는 ‘두근두근 기다려지는 시간’이라는 의미다.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 두 사람은 카페 곳곳을 직접 꾸몄다. 컵 홀더의 로고를 손으로 그리고, 인테리어를 직접 고민했다. 골목을 향해 커다란 창도 냈다. 그 창을 열면 카페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는데,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편안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이곳에서 날마다 떡을 찌고 그 위에 그림을 그리며 고객을 맞이한다.

“정식 개업 전부터 떡케이크 주문을 받아, 조금씩 단골이 생겼습니다. 동네 분들, 바로 앞에 있는 부산도시공사 분들이 많이 오세요. 아침에 백팩 메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시는 분, 점심마다 바닐라라떼를 주문하시는 분 등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창엽)

간단한 인사를 건네는 정도지만 부부는 공간을 자주 찾아주는 사람들을 금방 떠올릴 수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고맙기 때문이다.

“앞으로 배달도 하고, 떡케이크 원데이 클래스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더 많은 분들을 만나고 싶어요.” (박혜전)

이제 막 첫걸음을 디딘 두두커피&떡방. 그만큼 할 일도 많다. 무엇보다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과 더 소통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 거리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고 싶다.

31



두두커피&떡방

▷ 부산진구 신천대로 162번길 19

⌚ 평일 8:30~20:00
토요일 10:30~18:00
일요일 휴무

☎ 예약 및 문의

010-9182-4407

Instagram

dddd.bang

Talk

두두떡방

더 많은 부산 청년이 생겨나도록,

계속해서 우리 도시 부산에서 살아가도록

부산 청년 세대, 부산에 살고 부산의 푸른 바다 내음을 늘 간직하고픈 세대,
1997년 외환위기 전후 청소년기를 지내온 세대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부터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
그리고 젊은 부부들까지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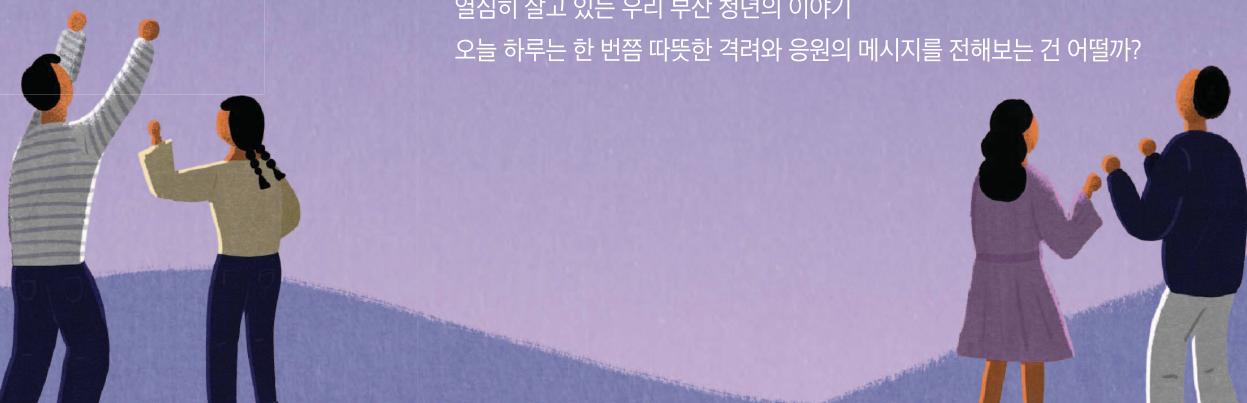
취업, 가족, 친구, 연애, 결혼 ...

청춘을 옮아매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의 성공적 해방을 위해
앞만 보지 않고, 고개와 시야를 최대한 돌려
옆도 뒤도 위아래도 돌아보며 알뜰살뜰히 행기고 있지만
왠지 오늘도 망망대해 속 통나무배에서 우두커니 표류하고 있는 느낌이다.

답답하지만 나가서 걸어보고 싶다!
걷다보니 뛰고 싶어지고,
뛰다보니 저 높은 하늘 위를 날고 싶다

청년에겐 공감을, 중년에겐 소통을 전하기 위해
BMC 공채 15기 신입사원들과 함께 부산 청년의 시련, 환희, 중년에 대해 이야기해보았다.

각자 알아서 살아온 그들의 이야기이지만, 모아보니 참 '부산'스러웠다.
열심히 살고 있는 우리 부산 청년의 이야기
오늘 하루는 한 번쯤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보는 건 어떨까?



왼쪽부터 정문경(건축), 백인호(조경), 나겸(토목), 손정민(행정), 김영학(전기)

33

요즘 부산 청년들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만의 시련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이상현 취업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대학 졸업 후 취업까지
평균 10.8개월이 걸리는데, 첫 직장에서의 근속연수는
1년 반이 채 안 된다고 합니다. 부산에서는 일자리 선택
폭이 좁기 때문에 서울로 떠나는 경우가 많은데, 타지에서
혼자 생활하는 것이 뉴록지 않습니다.

송호림 부산에서 태어났고 부산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청년
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부산과 멀리 떨어진 곳에 위
치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부산으로 들어오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부산에 기업이 없는 것이 부산 청년들의 큰 시련입니다.

백인호 부산 기업의 수는 인구수에 비해 많지 않고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임금을 담
합하여 대졸초임을 제시하고 있으며 포괄연봉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많지 않고 야근이 많아 대부분의 청년들은 공공기관 및 공무원에 취
업하기를 원합니다.

손정민 취업준비 기간 동안 선호배나 친구들을 만나면 항상 대화의 주제가 취업 스트레스입니다.
참여했던 스터디에서 실력이 정말 뛰어나다고 생각했던 친구들도 취업을 어려워하는 것을
보면 부산은 정말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송다연 최종합격 창을 보고도 얼떨떨하고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오랜 기간 준비를 했고 늘 탈락의 고배를 마셨던 저였기에, 타 기업보다도 경쟁률이 치열한 부산도시공사에 합격한 것이 더욱 믿기지 않았습니다. 합격 소식에 부모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제야 합격한 것이 실감이 나 기쁨의 소리를 한참 지른 기억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긍정적이고 밝고 열심히 하는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화이팅!

송호림 면접을 잘 봤다는 생각이 있어 덤덤했으나, 최종 합격을 어머니께 말씀 드리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 좋아서 울었습니다. 그동안 취업을 위해 본 면접만도 15번이 넘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정말 힘들게 들어온 부산도시공사이기에 정말 꽉! 잡고 가겠습니다.

대부분의 신입사원들이 부산 청년의 가장 큰 시련은 '취업'이라 했습니다.
지금은 그 취업을 통과하고 직장인이 되었는데요.
최종 합격소식을 들었을 때의 기분과 전달하고픈 나의 포부를 알려주세요.

박정우 정말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번이고 채용 홈페이지에 들어가 진짜 합격한 것이 맞는지 살 수 없이 확인했습니다. 몇 번이고 확인한 뒤 친구들에게 합격 소식을 알리고 축하를 받으니 그제서야 합격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는 동안 힘들었던 기억과 최종합격 후에 느낀 행복한 감정에 늘 감사하며, 즐거운 마음가짐으로 회사생활에 임하겠습니다.



왼쪽부터
박정우(토목), 전진환(통신),
조무근(행정), 신성호(행정)

나를 뛰어넘어
다같이 전진할 부산 청년!
마지막으로
청년이 꿈꾸는
부산 중년의 모습을
알려주세요.



왼쪽부터 김나경(행정), 박지영(전산), 송다연(행정), 송호림(기계), 김민우(행정), 이상현(건축)

이상현 중년이 되었을 때는 하나의 사업을 맡아서 책임지고 해나갈 만큼의 능력을 갖추고 싶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하여 도시 문제에 대한 깊은 연구를 하고 석사 학위를 취득할 것이며, 구조기술사 및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해 건축분야에서 저의 가치를 높이고 싶습니다.

나 겸 자기 할 일을 남에게 미루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누구에게나 '저 사람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가정에서도 제 역할을 다해 부모님, 아내, 자식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하루하루 뿌듯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손정민 서로 돋고 사는 중년이 되고 싶습니다. 취업만 하더라도 혼자의 힘이 아닌, 주변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설이나 추석의 연휴 기간 중 하루는 꼭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크리스마스 연휴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직접 마주보고 소통하며 더불어 사는 사회에 대해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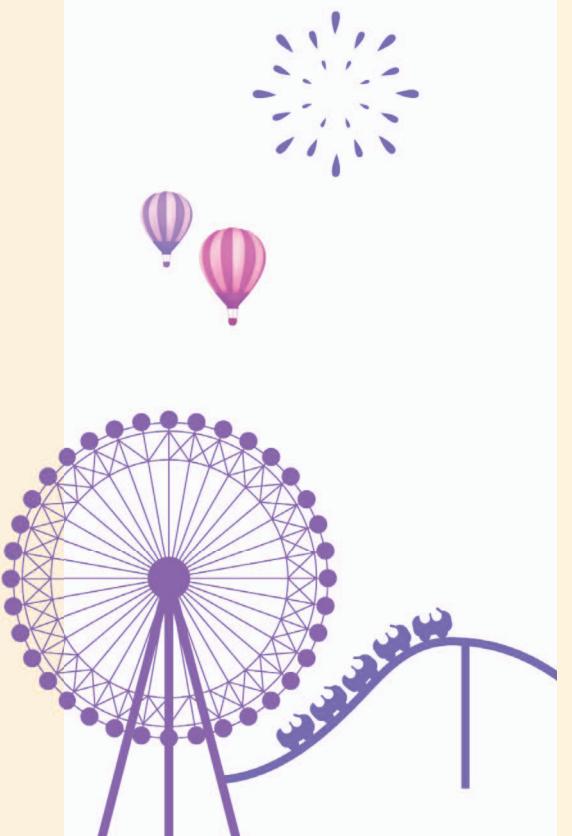
박정우 여유 있고 품위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일에 치이는 그런 일상이 아닌 스스로 일과 삶을 조절하는 중년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주위도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1 오시리아 테마파크 착공,

**국내 최고 놀이공원
드디어 첫 삽!**

36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테마파크 공사가 5월 16일 마침내 착공과 함께 첫 삽을 땋다. 2021년 상반기 그랜드 오픈 예정인 오시리아 테마파크는 연간 2,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되며, 1만 2천 개의 일자리 창출과 부산지역 전체 경제 활성화에 큰 파급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대장정의 시작, 시설사업비만 3,780억 원 투자

오시리아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2005년 관광단지 지정 이후 부산도시 공사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으나 사업자 유치에 난항을 겪어왔다. 마침내 2014년 11월 테마파크 개발사업자 공모를 통해 GS·롯데 컨소시엄(現 오시리아테마파크PFV 주식회사)을 사업자로 선정하고, 4년 동안의 준비를 마친 뒤 본격적인 착공을 목전에 두고 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는 총 34개의 관광시설로 구성될 예정이다. ▲테마파크, 골프장 등 운동오락시설 ▲과학관, 아쿠아월드 등 휴양문화 시설 ▲랜드마크호텔, 친환경리조트 등 숙박시설 ▲복합쇼핑몰 등 상가 시설로 구성되어 다양한 관광시설을 한 곳에서 누릴 수 있는 복합관광 단지로 만들 계획이다. 이 중 앵커시설인 테마파크에는 시설사업비만 3,780억 원이 투자되며,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 ▲뉴질랜드 스카이라인 루지 ▲스포츠파크 등의 놀이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춘 대규모 테마파크가 조성될 예정이다.

세계적인 테마파크,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

특히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은 2018년 4월 미국의 세계적인 테마파크 설계·디자인 회사인 게리고다드 엔터테인먼트의 개발 콘셉트 (숲·정원 테마의 매직 포레스트)에 따라 설계되었으며, ▲숲속 요정 마을 ▲땅속마을 ▲동물농장 콘셉트의 패밀리&키즈 ▲로리 왕국의 정원 ▲악당 마을 ▲공연 및 축제 공간 등 6개의 콘셉트 및 30여 개의 라이드와 어트랙션으로 구성됐다.

이미 전 세계 상위권의 테마파크인 서울 롯데월드 어드벤처를 운영 중인 롯데월드의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기대할 수 있는 데다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자연환경을 적극 활용한 야외 체험시설인 루지가 도입되어 국내 여행객뿐 아니라 많은 해외 관광객들까지 끌어들일 것으로 보인다.



01



02



01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 조감도

02 스카이라인 루지 조감도

03 로리 왕국의 정원 이미지

향후 1만 2천 개 이상 일자리 창출 효과

현재 오시리아 관광단지는 국립부산과학관, 롯데아울렛, 힐튼호텔, 아난티코브 등의 운영으로 3,000여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향후 테마파크를 비롯한 34개의 관광시설이 본격적으로 운영될 경우 오시리아 관광단지 전체 활성화는 물론, 단지 내에서만 1만 2천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공사 중인 이케아의 경우 내년 1분기 개장을 앞두고 있고, 아쿠아월드 역시 작년 말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된 후 내년 초 착공을 위해 준비 중이다. 작년 하반기 사업자를 선정한 친환경리조트, 메디타운, 별장형콘도 역시 최근 용지매매계약이나 사업협약 체결을 완료한 바 있다. 향후 오리시라 관광단지 전체가 준공되면 연간 2,0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명실상부한 국내 대표 관광단지가 탄생하게 된다.

37

2

BMC 행복주택 첫 사업,

동래 행복주택 성공적 출발!

38



부산 청년의 주거난 해소를 위한 행복주택 공급

부산도시공사는 지난 5월 동래 행복주택 395세대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했다. 이는 공사가 추진 중인 ‘행복주택’의 첫 사업으로 청년 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도입한 시민복지사업이다. 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전체 3개동 25층 규모이며, 주거전용면적 기준 19㎡(198세대), 25㎡(16세대), 29㎡(99세대), 32㎡(19세대), 36㎡(63세대)의 형태로 만들어진다. 단지 안에는 주민 편의시설인 어린이집, 사회복지관, 도서관, 노인지원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며, 아동 돌봄을 담당하는 어린이집과 사회복지관은 정원의 70% 내에서 입주민 자녀를 우선 선발한다. 또한 부산도시공사는 편의시설을 동래구에 무상 임대하기로 했다.

‘행복주택’ 입주에 높은 관심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동래 행복주택’ 청약 접수 결과 총 1,969건이 접수되어 약 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청년 계층 모집은 11.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청년들이 초기 비용 부담이 적으면서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주변에 학교·병원 등이 인접한 주거환경을 선호한 이유로 분석된다.

향후 분양할 ‘일광 행복주택’도 시민중심 및 수요자 맞춤형 공급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신혼부부 세대의 전용면적을 44㎡에서 59㎡으로 확대 공급해 젊은 계층의 선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거 복지 서비스의 진화

부산도시공사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하나가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사업이다. 현재 추진 중인 청년주거복지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대규모 공급이 가능한 ‘행복주택’, 전국 최초로 공사 자체 재원을 투입한 ‘청년임대주택’,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타 지역 출신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청년)’ 사업이 있다.

기존 국비를 지원받아 공급하는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은 입주자격을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실제로 집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사는 일정 소득이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자체 자금을 투입하여 주거 환경이 편리한 지역에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이미 109호를 완료했으며, 오는 2022년까지 241호를 추가로 매입 후 공급할 계획이다.

‘매입임대주택(청년)’ 사업은 부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중 부모님이 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입주할 자격이 주어지며, 주변 시세의 30~50% 가격에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다.

부산도시공사는 부산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타 지역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인프라를 구축해, 더욱 활기차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39

입주대상	행복주택	청년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청년)	매입임대주택(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19㎡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금 2,400만 원 내외 - 임대료 월 10만 원 수준 ● 신혼부부(36㎡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금 5,000만 원 내외 - 임대료 월 20만 원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혼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금 6,000만 원 - 임대료 20만 원 수준 ●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금 2,400만 원 - 임대료 10만 원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지역 출신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1, 2, 3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순위는 지역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정, 주거지원 시급가구, 아동복지시설 5년 이내 퇴소자 (소득 70% 이하), 장애인(소득 70% 이하) 등
자금조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주택도시기금의 자금	공사 자체예산	주택도시기금 국고보조금	주택도시기금 국고보조금

* 소득 기준 : 전년도(2018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3인 이하 5,401,814원 / 4인 6,165,202원 / 5인 6,699,865원



40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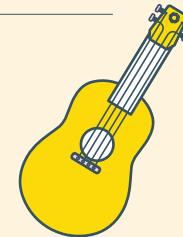
**우수 '나' 등급**

2019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 시민 중심 경영과 사회적 가치 실현 위한 공적 기능 강화
- 사업다각화, 신규 사업 발굴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청년 채용, 사회공헌 확대, 안전 활동 긍정적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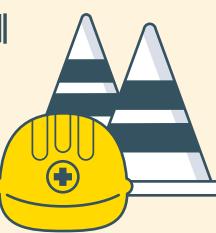
시민과 함께 도시재생을 이야기하다

**BMC 도시재생콘서트**

- 6월 24일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 '도시가 행복해지는 이야기'를 주제로 임직원 및 일반 시민 대상 행사 개최
- 1부 '행복한 도시', '행복한 동네 그리고 집' 등을 주제로 강연
- 2부 가수 '옥상달빛'이 도시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름다운 감성으로 노래
- 참여형 전시물 '도심 속 행복마을' 설치



안전문화 혁신에 앞장서다



- 3월 13일 대한토목학회와 '시민안전과 건설기술 혁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 체결
- 6월 14일 한국비계기술원과 '주력재해 예방과 가설공사 안전·품질 선진화' 협약 체결
- 안전 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건설 현장에 관련 캠페인 시행, 교육용 도서 배포 등
- 지역 내 건설재해 저감을 위한 예방활동 강화, 신기술 및 신공법에 대한 연구개발 등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

#Hot Issue**지역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다****- 최우수 'S'등급**

2018년 부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실적 평가(지역 내 공사·공단 중 유일)

-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2018년 일자리 창출 분야 우수기관 선정

- 지역인재 신규채용 지속 실시



- 개발사업을 통한 5,334명의 간접 일자리 창출(2018년)

지역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다

- 3월 27일 부산 최초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실버일자리센터' 조성
- 지역 커뮤니티와 함께 계획 및 구상, 다대 5지구 임대아파트 상가 4개소의 효율적 활용
- 먹태 가공 공동작업장 64명, 실버택배 7명 등 총 71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 제공



편리하고 아름다운 마을을 조성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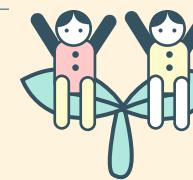
- 고령자, 장애인 위해 영구임대아파트 4개 지구에 승강기 추가 설치 사업 시행
- 올해 다대3지구, 학장1지구에 공사 시작, 내년까지 나머지 지역 순차적 시행
- 4월 27일 학장1지구 BMC아파트 마을공동체와 '옹벽 벽화 환경개선사업' 기념 핸드페인팅 퍼포먼스 개최
- 올해 하반기에는 개금, 반송 지구 등에서 시행할 계획

사회적 가치 경영을 추진하다



- 삶의 행복을 시민 가까이에서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 중심 경영 본격 추진
- 전담부서 '사회적가치관리부' 신설, 주거복지사업본부를 '시민행복사업본부'로 명칭 변경
- 민간사업자 설계 공모 시 '사회적 책임'을 평가 항목에 도입
- 사회적 기업과 성과공유제 계약 체결을 통한 사회 공헌 활동 활발히 전개

아이들이 원하는 놀이터를 만들다



- 5월 7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부산 최초 '참여형 어린이 놀이터' 협약
- 전형적 놀이터 탈피, 놀기 좋은 공간을 아이들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방식
- 놀이터의 크기, 위치, 놀이시설의 종류, 설계·감리 과정 등에 어린이의 상상력·목소리 반영



마을 주민들의 애환을 위로하다

- 서부산권 개발사업으로 고향을 떠난 15개 마을 주민들을 위해 강서구에 '녹산고향동산' 조성
- 주민들이 고향의 옛 추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6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
- 산책하기 좋은 문화 공원, 고향을 기리는 망배단·추억의 벽, 마을 축소 모형 등 조성

41

BMC PROJECT

 집과 공간을
짓습니다



42

일광 분양주택 3, 5·6BL

- 기장군 일광도시개발사업지구 내
- 2,460세대 • 7,461억 원

일광지구 행복주택

- 기장군 일광면 일광지구 도시개발구역 내 B7BL
- 999세대 • 1,535억 원



- 부산진구 연지동 부산시민공원 내
- 2만m² • 916억 원

부산국제아트센터



부산회동 행복주택

- 금정구 개좌로 일원
- 100세대
- 122억 원

시청앞 행복주택

- 연제구 연산동 일원
- 1,800세대(변경예정)
- 2,949억 원



동래역 행복주택

- 동래구 반송로 일원
- 395세대
- 475억 원

아미4 행복주택

- 서구 아미4 주거환경 개선정비구역 내 A-1BL
- 797세대
- 1,144억 원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

-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단 내
- 6천m² • 140억 원

 일터를
만듭니다



국제산업물류도시 1-2단계

- 강서구 미음·송정동 일원
- 347만 5천m² • 1조 3,024억 원



오리일반산업단지

- 기장군 장암읍 오리 일원
- 60만 6천m²
- 1,545억 원



센텀2 도시첨단산업단지

- 해운대구 반여동·반송동·석대동 일원
- 194만 6천m² • 1조 6,413억 원

사상공업지역 재생 활성화

- 사상구 학장동 일원
- 1만 7천m² • 633억 원

43

 미래도시를
창조합니다



에코델타시티

- 강서구 명지동·강동동·대저2동 일원
- 218만m² • 8,158억 원



오시리아관광단지

- 기장군 기장읍 대변·시랑리 일원
- 366만 3천m² • 9,144억 원

일광지구 도시개발

-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이천리·횡계리 일원
- 123만 7천m²
- 5,869억 원

해운대관광리조트

- 해운대구 중1동 일원
- 6만 6천m²
- 2,074억 원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님니드느거나」에서
좋았던 기사·다루었으면 하는 주제·
개선해야 할 점 등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옆에 퀴즈의 정답도 함께 보내주시면,
다섯 분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44

참여기간 2019년 10월 31일까지

참여방법 웹메일 전달 또는 인스타그램 게시
(의견 및 퀴즈 정답 함께)

✉ 웹메일 제출
leeyj0423@bmc.busan.kr

※ 참여 시 반드시 휴대전화번호를 함께 기재해주세요.

📷 인스타그램 게시
#부산도시공사 #바다가 #퀴즈 해시태그

당첨자 발표 「ㅂㅏ ㄷㅏ ㄱㅏ」 다음호 및 개별연락

문의전화 051-810-1484
(고객소통부 이용재 대리)



Q1. 2016년부터 ‘_____’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재탄생한 동부산관광단지는 볼거리, 즐길 거리에 더해 쉴 거리 또한 가득한 공간이다.

11페이지

Q2. 현재 추진 중인 청년주거복지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①_____ ,
②_____ , ③_____ 사업이다.

(총 39페이지)

Story of C++

부산도시공사의

자음만 모아보니, ㅂㅅㄷㅅㄱㅅ가 되었고

마이사이에 있는 ㅅ을 살짝 기울여보니 ‘ㅂㅏ ㄷㅏ ㄱㅏ’가 되었습니다.

부산도시공사의 또 다른 이름, 그리고 부산을 담은 책 ‘**부산 도시 그림**’는 부산의 바다처럼 더 많은 것을 품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도시와 함께 살고 있는 우리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함께 만들고 나누어 가겠습니다.

바다가 좋은 도시 부산, 점점 더 좋아지는 '바다거' 되기를

점녀퇴임

명예로운 퇴임을 축하드리며,
님 와 함께 부산을
위해 익해증서를 간사합니다.

19년 결혼

• 그들의 더 많은
이 생겼습니다. 행복한
이 이여이 되길 기원합니다

2019년 출산

세상에서 제일 귀한
아기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2019년 신규임용

님 편지가의 새로운 가족이 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조무근(기획관리실), 손정민(기획관리실),
박지영(경영지원실), 송다연(마케팅실),
김민우(보상화계처), 신성호(주거복지사업처),
조미(주거복지사업처), 김나경(주거복지사업처),
나겸(토목안전처), 박정우(토목안전처),
김성은(미래전략실), 정문경(주택사업처),
김우종(주택사업처), 임영훈(주택사업처),
이상현(도시재생처), 송호림(시설관리처),
박지영(기전사업처), 김영학(기전사업처),
전진환(기전사업처), 백인호(개발사업처)